

FIRSTDRAFT

속지 말자: 누구나 할 수 있는 페이크 뉴스 검증

원문 링크: <https://firstdraftnews.com/dont-get-tricked-this-election-checks-on-fake-news-that-anyone-can-do/>

기사: 엘리스테어 레이드 (퍼스트 드래프트 소속 기자)

일자: 11월 4일, 2016

“우와!”와 공유 사이: 거짓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가짜 이야기를 가려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인터넷은 포토샵 처리된 사진, CGI 동영상, 정치 루머, 날조된 정보 그리고 노골적인 거짓말들로 넘쳐난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오보가 소셜 미디어 덕분에 아주 쉽게 전세계로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간다.

2016년 미국선거 기간은 소셜 미디어상에서 성난 격류에 가까운 페이크 뉴스의 흐름을 탄생시켰다. 퍼스트 드래프트(First Draft)가 [프로퍼블리카](#) [일렉션랜드 프로젝트](#)(ProPublica's Electionland project)의 일환으로 선거일에 대한 보도들을 분석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지는 모르지만, 거짓이든 진실이든, 정보를 퍼뜨리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조했다. 그렇다면 페이크 뉴스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소셜 미디어상의 사진이나 기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것은 때론 매우 쉬운 일이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십대들에서부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은퇴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온라인 정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툴과 간단한 방법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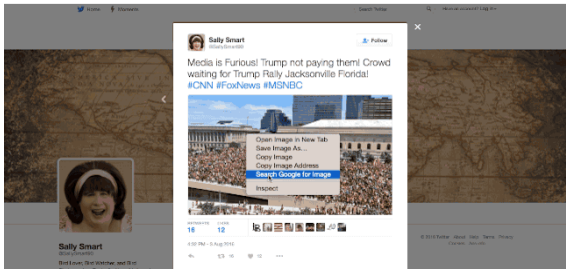
뉴스 편집자들은 저널리즘을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어찌라고(so what)” 검증법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 기자가 기사 거리가 생겼다 치자. 누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가 문제이다. 뉴스 편집자들을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상의 어느 누구라도, 페이크 뉴스에 있어서는 “우와” 검증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일 셀 수도 없이 많은 흥미롭고 놀라운 기사들이 우리의 뉴스피드를 스쳐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멈칫하게 하고 “우와”하고 놀라게 하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순간, “우와”와 공유의 사이에서, 우리는 “이게 진짜일까? 내가 거짓을 공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거짓은 우리의 “우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 거짓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내 팔로워가 되게 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페이크 뉴스 사이트 링크에 클릭해서 광고를 보게 하든,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사안을 지지하게 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기사가 우리의 세계관과 부합된다고 생각되면,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우와” 검증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소셜 미디어상의 어떤 이야기가 대단해 보여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질 때,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혹시라도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왜냐면, 우리를 속일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지만 그러한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아주 간단한 검증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리버스 이미지 검색



구글 크롬에서 제공하는 리버스 이미지 검색은 몇 초 밖에 안 걸린다.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속임수는 예전 이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전혀 다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이다. 고맙게도, 이 방법은 확인이 쉬운 것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리버스 이미지 검색은, 온라인상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이다.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미지가 전에 게재됐던 웹 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



위의 트윗은 분명 “우와” 검증법을 통과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트럼프를 기다리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들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은 과연 이전에도 온라인상에 게재된 적이 없을까?

구글 이미지(Google Images)와 틴아이(Tineye)는 수많은 사진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여기에 이미지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사진을 업로드해서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 구글 크롬을 웹 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지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Search Google for image)”을 선택하기만 하면 더 간단하게 일치하는 사진을 검색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위의 인파 사진을 검색해보면, 해당 사진은 사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NBA 우승 후 축하 퍼레이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지지 집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옛날 사진들은, 속보, 이민자 관련 뉴스, 정치 폭력, 이슬람 극단주의 및 기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사안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도하는데 흔하게 사용된다. 또한, 많은 페이크 뉴스 사이트들이 날조된 이야기 설명에 이러한 옛날 사진들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동영상의 경우에도 스크린샷을 캡처해

FIRSTDRAFT

검색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기술이 최근 몇 주간 널리 공유되었던 [“투표함을 채우다 들킨 민주당원들” 허위 비디오의 출처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줬었다.

신속한 리버스 이미지 검색을 통해 바로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

페이크 뉴스 사이트들



페이크 뉴스 사이트들에는 종종 자신들의 콘텐츠는 “풍자”임을 설명하는 면책사항이 있다.

잘못된 정보를 미끼로 이용해 어떤 사안을 밀어붙이거나 클릭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특히 이상한 기사들을 실는 한 웹사이트의 “회사 소개(About)” 섹션을 들여다보면,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가 단지 “풍자” 또는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웹사이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뉴스 출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이러한 사이트 중에서, “보스턴 리더(Boston Leader)”라는 사이트는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새로운 고릴라의 이름을 공모 끝에 “하람베 맥하람베페이스(Harambe McHarambeFace)”라고 지었다는 기사를 지난 9월에 보도했다. 보스턴 리더사는 “1932년부터 보스턴의 최상의 뉴스를 보도”해온 것으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Whois에 검색해보면 이 회사는 이 고릴라 기사가 보도된 날짜보다 고작 며칠 일찍 설립된 회사임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Whois 검색](#)은 어떤 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준다. 많은 사이트들이 등록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개인 정보를 숨기겠지만, Whois 검색은 적어도 그 사이트가 실제로 생성된 날짜는 항상 제공한다. 어떤 사이트의 실제 설립일이 그들이 주장하는 설립일보다 훨씬 더 최근인 경우, 페이크 뉴스 기사를 퍼뜨리기 위해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Whois 검색은 웹사이트가 생성된 날짜를 알려준다.

FIRSTDRAFT

어떤 가짜 사이트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유명한 주요 뉴스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페이크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다. 이런 사이트들은 진짜인 것처럼 보여도 도메인명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뉴욕 타임스로 가장한 페이크 뉴스 기사가 수천 개의 공유수와 조회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민주당 후보로 지지한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사용자가 실제 기사의 스타일로 페이크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클론존(CloneZone)이라는 사이트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설립된 사이트의 경우 “클론존링크.링크(clonezone.link)”가 URL에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기사: [뉴욕 타임스 슈퍼 화요일 페이크 뉴스에서 얻은 교훈: 페이크 뉴스를 가려내는 5가지 방법](#)

일부 가짜 사이트들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도메인명을 약간씩 바꾸기도 한다. 언뜻 보면, “abcnews.com.co”나 “daily.com”과 같은 도메인명의 경우 ABC 뉴스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실제 기사를 게재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진짜 뉴스와 유사해보이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링크를 공유하도록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우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1분이면 그 진위를 재확인해 볼 수 있다.

사람 및 이름 검색

페이크 뉴스로 클릭 수와 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헤드라인에 공을 들인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세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명백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다.

한 예로, 월드 뉴스 데일리 리포트(World News Daily Report)의 한 기사에서는 한 동물원 직원이 악어와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 했는데, 이 기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2만번 넘게 공유되었다. 해당 “기자”가 나폴리 경찰서의 헨리 화이트(Henri White) 서장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헨리 화이트 경찰서장에 대한 기록은 인터넷 어디에도 없다. 이 악어 기사나 페이크 뉴스를 다루는 [스놉스\(Snopes\)](#) 같은 웹사이트상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기사: [온라인 페이크 뉴스의 숨길 수 없는 5가지 특징](#)

실제 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의 경우 보통은 다른 곳에서도 뒷받침이 되기 마련이고, 편집 기준이 있는 기관에서 보도한 기사의 경우에는 누구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링크, 사진, 기관, 장소 및 사람들을 포함한다.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이 불충분한 반면 인용문과 기사 줄거리만 크게 보도된 경우,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페이크 뉴스 사이트에서는, 화가 난 캄보디아 마을 사람들로 부터 도망치던 한 광대가 지뢰밭에서 폭발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 어디에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이름은 전혀 없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검증 방법 중 어느 것도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주요 미디어 기관들에 의해 널리 공유되고 제보도 되었다.

직접 확인해보기

FIRSTDRAFT



트위터는 패러디 계정으로 가득하다.

페이크 뉴스 기사를 둘러싼 세부 내용에 매달리다 보면 그 허위 기사 내용 전부의 진위가 드러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상의 많은 페이크 주장이나 보도들의 경우, 해당 플랫폼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누군가 놀랍고 뉴스가 될만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트위터는 패러디 계정들과 잘못된 인용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공인의 트윗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공유했다면, 공유 전에 그것을 편집했을 수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첫 번째 대선 토론 중에 기후 변화에 관한 트윗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3만 5천개 이상의 리트윗이 발생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최초 트윗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여전히 온라인상에 있었다.

그리고 페이크 뉴스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패러디 글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공인의 사용자명과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파란색 “검증됨” 표시를 찾아보고 [어드밴스드 검색\(advanced search\)](#)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몇 초 만에 알 수 있다.



당사의 [검증 자원 섹션\(verification resources section\)](#)에서 검증 요령 및 기술을, [페이크와 속임수 섹션\(fakes and hoaxes section\)](#)에서는 페이크 뉴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사진과 동영상 검증 방법에 대한 본 안내서](#)를 다운로드 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다음 번에 그 “우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지 몇 초 동안만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